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	
	보도	2020.5.28.(목) 10:00부터	배포	2020.5.28.(목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진 선 영(02-2100-2920)		담 당 자	김 선 욱 사무관 (02-2100-2922) 전 동 연 사무관 (02-2100-2936)	
	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본부장 서 종 군(02-2090-9110)			김 태 수 실 장 (02-2090-9121)	

제 목 : 기업구조혁신펀드와 민간투자자가 협업하여 구조조정 시장을 Boom-up시켜 나가겠습니다.

- 손병두 부위원장,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-

1. 간담회 개요

- 금융위원회는 금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「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」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음
- 기업들의 경영정상화에 투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1조원 추가 조성(1.6→2.6조원)을 계기로,
 -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기관, 법원·법무부 등 관계기관,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'기업 구조조정 시장'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
- 특히,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, 기업자산 매각 등 M&A 투자기회가 확대되면서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임을 강조하고,
 - 시장 플레이어들에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

< 간담회 개요 >

◆ 時/所 : '20.5.28.(목) 10:00~11:30 /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(양재 캠퍼타워 20층)

◆ 참석 : (금융위) 금융위 부위원장, 구조개선정책관

(출자기관) 산은, 수은, 캠프, 기은, 한국성장금융(운용사)

(관계기관) 서울회생법원, 법무부, 유암코

(시장 전문가) PEF 운용사*, 기업, 민간투자자, 법무·회계법인 등

* MBK, 스카이라이프, 스틱, JKL, VIG, 액터스, 큐리어스

2. 부위원장 모두 발언 요지

-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가 지급불능 위기로 급속히 전개되어, 정상 기업이 구조조정 기업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당분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
 -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 지원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,
 - 민간의 풍부한 자금과 창의성을 통해 기업의 가치·경쟁력을 제고하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이 필수적임
 -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자산(계열사 등)을 매각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므로,
 - 투자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업구조조정 시장 플레이어들이 자산매각 시장에서 선도적인 유틸리티 역할을 수행해야 할 시점임
- 한편,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'시장 중심의 구조조정'이란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
 - 장기간 워크아웃이 지속되던 동부제철, 수차례 매각에 실패 하였던 성동조선에 대해 투자하여 경영정상화의 기반을 마련
 - 이는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이 공적 지원 등에서 민간 투자영역의 하나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

○ 이번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‘부채투자 전용펀드’(PDF : private debt fund)를 조성하는 것임

-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양한 자금수요 (단기·소액자금 등)가 충족될 수 있고,

-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분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수 시점도 빨라 낮은 리스크로 안정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, 구조조정 분야에 접근하는 문턱을 낮춰 다양한 투자사례도 창출 가능

□ 또한,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기업 구조조정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인프라 조성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임

○ 불합리한 관행개선, 예측가능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 등 기업과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선호를 반영하여 구조조정 절차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고,

○ 구조조정 기업정보의 적시 제공, 구조조정 절차와 시장참여 간 연계 강화*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

* 회생기업의 인가 전 M&A 활성화,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등

○ 아울러, 정보공유 플랫폼인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성공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확대·재생산하려는 노력도 지속

□ 마지막으로, 기업·투자자·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‘한국형 기업 구조조정 시장’을 Boom-up시켜 나갈 것임

○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확대로 제2기에 들어서면서,

○ 그간 구조조정 시장에 참여해 왔던 자산 운용사 외에도 M&A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자산운용사들도 앞으로 시장중심 구조조정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

3. 기업구조혁신펀드 성과 및 개선방안

□ (성과) 기업구조혁신펀드는 '18년 8월 조성된 이래, '20.4월말 기준 총 16개 기업에 약 7,000억원의 투자금을 집행

○ 철강업, 조선업, 자동차부품업 등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를 집행(12개 기업, 투자액 6,404억원, 전체 대비 91.5%)

< 주요 투자사례 >

① **동부제철(철강업)** : 장기간 지속된 워크아웃('15년~) 체제 하, 기업가치는 점차 하락 → '19.8월 기업구조혁신펀드에서 KG그룹과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를 인수하며 워크아웃 졸업

② **성동조선해양(조선업)** : '18년 회생절차에 진입하였으며, 수차례 매각이 불발 → '19.11월 4차 회생 M&A 과정에서 기업구조혁신펀드와 HSG 중공업의 경영권 인수로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종결

□ (개선방안) 기업 구조조정 시장 'Boom-up'을 위한 투자규모 확대, 투자방식 유연화 등 추진

① (운용규모 확대) '20년 1조원* 추가 확대(1.6→2.6조원)하여, 기업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 역할 강화 노력 지속

* 모펀드(5,015억원) + 민간투자(5,015억원 예상)를 통해 약 1조원 조성
→ 모펀드 출자자: 정부재정, 산은, 수은, 캠프, 기은, 성장금융

② (투자방식 유연화)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
1) 프로젝트펀드 비중 확대 및 2) 부채투자 활성화

1) 프로젝트 펀드 비중 확대(26→40%)을 통해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투입 가능*(추가 조성 약 1조원 중 40% 배정)

* 투자대상을 결정한 상태에서 펀드가 결성되므로 블라인드펀드와 달리 펀드가 결성된 직후 해당기업에 투자가 바로 집행

2) 기업의 차입수요 충족 및 신속한 투자집행을 위해 '부채투자 (대출·CB·BW) 전용펀드' 신규 도입(추가 조성 약 1조원 중 30% 배정)

< '20년 추가 조성 기업구조혁신펀드 하위펀드 조성규모(안) >

구분(단위 : 억원)	블라인드펀드	프로젝트펀드	합 계
PEF(Private Equity Fund)	4,012	3,012	7,024(70%)
PDF(Private Debt Fund)	2,006**	1,000	3,006(30%)
합 계	6,018(60%)	4,012(40%)	10,030*(100%)

* 모펀드 5,015억원 + 민간매칭 5,015억원(모펀드 출자와 1:1매칭) 가정

** PDF 중 블라인드펀드는 **DIP금융**(회생절차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제공) **전용펀드**로 조성 계획

③ (투자대상 다변화) 투자대상 기업규모를 확대(중견·중소 중심 → 대기업 포함)하고, 제조업 이외의 업종(혁신산업 등)도 적극적으로 투자검토

④ (투자연계 유도)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他 펀드 등과의 공통 투자(Co-investment) 방안 검토(예 : 한 기업에 PEF+PDF 공동투자)

- 한편, 사업구조개선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 이해도가 높은 SI (전략적 투자자), M&A 투자회사 등의 참여도 적극 유도*

* 예) GP에 대한 보수구조 개편 등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시장으로의 유인구조 마련

< 별첨 >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
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
할 경우 출처를 표기
해 주십시오.
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
prfsc@korea.kr


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. 기업구조혁신펀드(I) 조성현황

기업구조혁신펀드(I)는 '20년 4월 현재 블라인드펀드 약 1조원, 프로젝트펀드 0.6조원 조성(예정 포함)으로 1.6조원의 재원을 조성

기업구조혁신펀드(I) 민간자금 모집 성과



- 1 국민연금의 SS&D 와의 공동출자 · 병행펀드 설립
→ 구조조정 시장 내 재무적 투자자의 범위 확대

* SS&D : Special Situation & Distressed

- 2 전략적 투자자(SI)의 유치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
→ 민간주도 구조조정 투자의 안정성 확보
→ 구조조정의 실현가능성 제고

* SI : Strategic Investors

최초 계획(1.08조원) 대비 0.53조원 초과달성

하위펀드 조성 현황

	운용사	약정액	모펀드	민간
블라인드	NH투자증권-오퍼스PE	3,061	1,000	2,061
	우리PE-큐캐피탈	1,551	750	801
	미래에셋벤처-큐리어스	1,066	500	566
	유암코-키스톤PE	1,000	500	500
	나우IB-KB투자증권	2,500	750	1,750
	유진자산운용-신영증권	1,050	500	550
	블라인드 합계	10,228	4,000	6,228

	운용사	약정액	모펀드	민간
프로젝트	뉴레이크PE(1차)	316	155	161
	옥터스PE-휘트린PE	700	280	420
	퍼즐-화인자산운용	106	50	56
	랙터스PE	3,655	350	3,305
	뉴레이크PE(2차)	306	150	156
	IBK투자증권(결성중)	354	175	179
	결성예정	510	255	255
	프로젝트 합계	5,947	1,415	4,532

- 증권사·자산운용사·벤처캐피탈과 같은 신규운용사의 구조조정 시장 참여 유도
→ 구조조정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

2. 기업구조혁신펀드 (I) 투자현황



기업구조혁신펀드(I)는 '20년 4월 현재 총 16개의 기업에 0.7조원의 투자를 집행하였으며, 투자현황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음

기업구조혁신펀드 투자 분석(산정 근거)



주목적투자비율
(투자금액)



제조업 투자비중
(투자금액)



중소기업 비중
(투자기업 수)

- 대부분의 투자를 주목적 투자 및 제조업 중심으로 투자
- 총 11개의 중소기업(약 69%)에 대한 구조조정 투자를 수행

실제 사례에서 본 우수 구조조정 투자사례

1 동부제철

워크아웃 체제 지속에 따른 신규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한계에 봉착하였으나, 기업구조혁신펀드와 KG그룹의 공동투자를 통하여, 워크아웃 졸업, 체질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기대

2 성동조선해양

'18년 회생절차에 진입하였으며, 수차례 매각이 불발되었으나, 기업구조혁신펀드와 HSG 중공업의 경영권 인수로 장기간의 구조조정을 종결

3. 기업구조혁신펀드(I, II) 비교



기업구조혁신펀드(II)의 특징은 기존 대비 ① **출자사업의 다변화** 및 ② **속도감 있는 출자사업을 추진**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

펀드 출자재원 및 출자사업 비교

운용사		기업구조혁신펀드(I)	기업구조혁신펀드(II)
모펀드 총액		5,415 억원	5,015 억원
출자기관		정책금융기관, 시중은행 및 한국성장금융	정부재정, 정책금융기관 및 한국성장금융
투자대상기업		중소·중견기업	중소·중견기업 위주 (대기업도 포함)
블라인드 펀드	출자액 (비중)	4,000 억원 (약 73.9%)	약 3,000 억원 (60.0%)
	출자 방식	PEF 분야에 “단계별 출자” (1차 2,250억 · 2차 1,750억)	각 분야에 “일시 출자” (PEF 약 2,000억 · PDF 약 1,000억)
프로젝트 펀드	출자액 (비중)	1,415 억원 (약 26.1%)	약 2,000 억원 (40.0%)
	출자 방식	운용사 제안방식	좌동

기업구조혁신펀드(II)의 주요 특징

1 출자사업의 다변화

기존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, 대기업 투자 허용 및 PDF 출자사업의 신규 출자에 따른 구조조정 투자의 지평(地浬)을 넓히는 효과

2 속도감 있는 출자사업 추진

정부재정 확보 및 모펀드 내 프로젝트펀드 금액 및 비중을 상향하여, 하위펀드의 결성가능성을 제고하고, 속도감 있는 구조조정 투자를 추진